‘남원 춘향제’ 세계화 가능성 봤다

올 축제 방문객 145만명
지난해보다 28만여명 증가
역대 최다…2년 연속 100만 돌파
소비 늘어 지역경제도 선순환

남원시는 지난 22일 서울역 맞이방에서 제95회 춘향제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서울역을 찾은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원시 제공〉

남원 ‘춘향제’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국가대표 전통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펼쳐진 ‘제95회 춘향제’에 145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다였던 117만여명보다 28만명이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역대 최다 방문객 수다.

이와 함께 올해 춘향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 비용이 6만7343원으로 전년 6만111원보다 7232원이 높아져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까지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춘향제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해마다 강화되는 춘향제 정체성과 남원시민 주도 축제 기획·운영기획 ▲공간 활용·춘향제 핵심 프로그램 안착 ▲먹거리, 농산물판매, 동행세일페스타 등을 꼽았다.

실제 남원시는 오는 2030년에 100회를 맞이할 ‘춘향제’의 방향성을 놓고 매년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며 춘향제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93회는 ‘빛’ 94회는 ‘컬러’ 95회는 ‘소리’ 등 춘향이 가진 여러 특징적 요소와 소리의 고장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 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시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남원시민 합창단’이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웅장한 합창으로 감동을 전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여기에 23개 읍면동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대규모 퍼레이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까지 남원만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시도하는 등 기획적인 요소가 빛났다.

또 지난해부터 축제의 메인무대를 광한루원 완월정이 아닌 외부로 옮기면서 공연과 관람의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요천변에는 춘향제의 상징적 꽃 조형물들이 들어서며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 낸 것도 크게 한 몫했다.

축제 먹거리 콘텐츠도 훌륭했다는 평이다. 더본코리아와 협업한 F&B존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결과 저렴한 가격에도 축제기간 총 매출액이 1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백향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푸드’ 체험과 직거래 장터는 방문객들의 높은 구매를 이끌어내며 지역 농가와 상인들을 웃게 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격·위생업소를 선언한 후 동참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 동행축제와 함께한 춘향 세일 페스타(동행세일페스타)’도 각광을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특히 올해 145만명이라는 유례없는 관람객 수를 기록한 춘향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닌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로서 더 진화·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고립위험 가구’ 일상 회복 지원

사회복지관, 요리 수업·치과 치료·식생활 개선 등

정읍사회복지관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립위험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리와 치과치료, 식생활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읍시 지정기탁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취약계층의 고립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 온(溫)온(ON)’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421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 95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다수 가구가 사회적 교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를 얻게 된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이들을 위해 치과 치료도 지원한다. 구강 건강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의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정기적인 반찬 제공과 밀키트 지원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불과 신선한 과일을 제공해 주거와 영양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정관일 정읍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립 위험 가구가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곳곳 ‘마음안심버스’ 달려갑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 인력 탑승 스트레스 측정·상담 서비스

남원시보건소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위기 대응을 위한 이동형 심리지원 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행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탑승한 특수차량으로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상담 등 제공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로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학교, 사업장, 복지시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시민 대상으로 자살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음안심버스는 전년도 자살사망자 수가 높았던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전역에서 36회, 600여명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과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고위험 시기에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심리적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터미널, 7월부터 임시부지서 운영

목화예식장~농협하나로마트 사이
도시재생 본궤도…다음달 건축설계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업부지 내 현 고창버스터미널이 7월부터 인근 임시부지에서 운영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혁신지구 내 터미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달 중 당선작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건축설계가 시작된다.

임시로 사용하게 될 터미널은 고창읍 목화예식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차량 대기 공간과 간이매표소, 대합실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기존 터미널 철거공사도 시작된다 .먼지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림막 설치가 준비되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 내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마다 다른 진행상황을 보인다. 지난 12일 터미널 뒷상가에 대해 건축심의가 완료돼 내달 중 기존 건축물 철거부지에 새 건축물이 착공될 예정이다. 또 임시터미널 운영에 맞춰 터미널 매표소 건물은 현재 해체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창천 방향 터미널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기로 한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군과 LH가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면적 역시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됐다.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조감도.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고창군이 군 단위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선정이란 성과를 창출해 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이다.

사업비는 1777억원,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교통, 주거, 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더 풍성하게…고창 모양성제 준비 착착

다음달 추진위 구성·전문 대행사 선정…프로그램 발굴 본격화

고창군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제52회 고창모양성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전문 대행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대행사는 고창군과 함께 축제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된다.

또 오는 6월에는 지역 인사, 문화예술계,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군은 고창모양성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올해 축제는 더 새롭고, 더 화려하며,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고창읍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고창만의 멋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모양성제부터는 고창읍성~꽃정원~자연마당 구역과 서문 민속마을까지 행사장을 대폭 확장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로 52회를 맞는 고창모양성제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진정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고창만의 독창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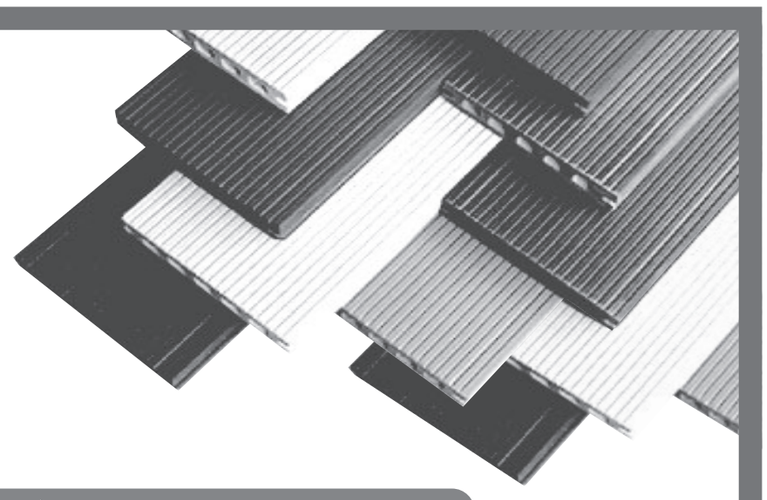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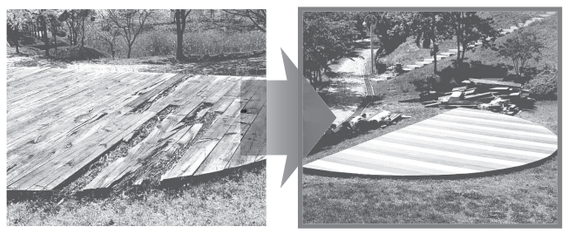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